

-자 (청유)

청유 — 반말(해라체)

-(으)십시오의 반말 형태입니다. -(느)나다--니?--아라/어라와 함께 해라체 세트를 이룹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작 동사	-자	가다 → 가자
ㄹ 어간은 ㄹ 유 지	-자	만들다 → 만들자
하다 동사	-자	공부하자
부정	-지 말자	가지 말자
형용사	불가능	좋자는 없음
간접 화법(제안 전달)	-자고 하다	가자고 했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모든 동작 동사 어간에 -자를 붙입니다: 가자, 먹자, 하자. 형태 변화가 없고 ㄹ도 유지됩니다: 만들자. 부정형은 -지 말자입니다.

친한 친구, 형제자매, 확실히 어린 사람에게 씁니다. 동료에게는 -(으)십시오나 의문문을 쓰고, 뒷사람에게는 둘 다 쓰지 않고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: -(으)니까요?

모든 청유형과 마찬가지로 동작 동사에만 붙습니다. 상태는 청할 수 없으므로 좋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

지금 짚어 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. 간접 화법으로 제안을 전할 때도 이 형태를 바탕으로 합니다. 가자고 했어요는 원래 어떤 높임 수준으로 말했든 '같이 가자고 제안했다'는 뜻입니다.

■ 예문

- 1 우리 같이 가자.
- 2 배고픈데 뭐 좀 먹자.
- 3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자.
- 4 저녁은 우리가 만들자.
- 5 그 얘기는 오늘 하지 말자.
- 6 친구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.

■ 비교

-(으)십시오
의미는 같고 말투가 다릅니다. -자는 친구에게, -(으)십시오는 동료나 회의 자리에서 씁니다. 둘 다 뒷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.
같이 가자. (친구에게) / 같이 갑시다. (동료에게)

-(으)니까?
의문문은 결정을 열어 두고, -자는 결정을 알립니다. 친구 사이에서는 둘 다 흔히 쓰며, -(으)니까가 더 부드럽게 말을 꺼내는 방법입니다.
같이 갈까? (같이 묻기) / 같이 가자. (가자고 제안)

-자고 하다
간접 화법 형태입니다. 원래 말한 사람이 어떤 어미를 썼든 제안을 전달할 때는 항상 -자고가 됩니다.
같이 갑시다. → 같이 가자고 했어요.

■ 주의

- ✗ 선생님, 같이 점심 먹자.
- 선생님, 같이 점심 드실까요?
-자는 아랫사람에게 또는 친한 사이에서 씁니다. 뒷사람에게는 -(으)니까요?로 묻고 높임 동사를 쓰세요.
- ✗ 오늘 날씨가 좋아.
- 오늘 날씨가 좋으면 좋겠다.
행동은 청할 수 있지만 상태는 청할 수 없습니다. 형용사에는 청유형 어미를 붙일 수 없습니다.
- ✗ 그 얘기는 하지 않자.
- 그 얘기는 하지 말자.
부정 청유형은 부정 명령형과 마찬가지로 말다를 씁니다. 않다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.